

KVMCF TIMES

Korean Veterans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in Southern California

장소: 2975 Wilshire Blvd., # 415 Los Angeles, CA 90010 Phone: 1-213-268-9367 회장 김희창

Website: <https://www.youtube.com/watch?v=0SzLJAGTRPQ>

대한민국건국 73주년 포럼 성황리에 개최



8월 행사 핵심 정리

포럼 4명 핵심 발췌

**"기적적으로 건국된 자유 대한민국을
이제 통일대국 되게해 선조의 꿈에 보답해야"**

광복절 행사에 가리워진 대한민국 건국 73주년 기념행사를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회장 김희창박사) 주관으로 8월 14일 토 11시에 한인타운의

2975 윌셔가 415호실(말씀새로운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본 행사는 3대 목적이 있는데

- 1.대한민국 국가 정체성 위기의식에 호국 운동 동기부여,
- 2.해외동포로서 애국운동 심화 촉구,
- 3.한국전쟁 통해서 군사협정 통한 한미동맹 구축 유지하도록 위해서 행사하였다.

본 행사는 공동협력기관으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장
 미주3 1 여성동지회장
 자유대한지킴이국민운동본부
 트럼프필승한인팀총회장
 미주성시화운동본부공동대표
 남가주원로목사회장

국민의힘당 LA지회장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대표

한미동맹협의회 총재의

협력으로 행사를 하였다.

광복절에 가리워진데다가 좌파 역사관에 의도적으로 숨겨진 대한민국의 건국 사건의 73주년 기념 행사를 하나님사랑과 나라사랑의 모토를 지닌 남가주 한국 예비역기독교군인회(KVMCF SC 회장 김희창)가 주관으로 호국행사로 강력하게 행사하였다.

1부 예배는 최청학부회장의 인도로 기도에 김경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인 김경일 박사, 설교에 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김인수박사가 "바울사도의 애국애족"을 역사신학과 군목사역의 배경 하에서 설명하였다. 또한 김소연찬양율동단, 월드타운찬양팀이 사역으로 섬기었고 차기학부회장이 봉헌기도하였다.

이것 2부 대한민국 건국 73주년 기념 포럼에서는 서울 교통방송 아나운서 출신 컨넬대학교에서 공중커뮤니케이션 전공한 최한나 아나운서가 진행하였는데 4명의 발표자들이 의미 깊은 내용을 발제하였다.

핵심은 이승만박사가 임시정부나 대한민국 건국이나 국회의 초대의장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창설, 평등인권국가, 기독교적 입국 철학을 국사에 깊게 뿌리놓았음을 강조하였다.

발제자들이 잘 준비된 자료배포를 함으로서 포럼의 진진성이 있었다.

첫째로 최학량 박사/목사는 이승만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 LA회장으로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그것은 기독교 입국정책, 현대사회로의 정책, 반공산주의로서의 자유민주주의 정책, 보안법과 안보정책, 한미상호방위조약 정책, 교육진흥정책 등 6개항으로 강조하였다.

두번째로 그레이스 송 회장은 미주 31 여성동지회장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업적"을 인쇄물에 준비되어 있듯이 이승만대통령의 건국은 의협심과 선각자의 행동이었고 독립운동가의 대한민국 건국으로서 당시 공산화를 막아낸 자유민주주의 기적을 일구워낸 애국이었고 이런 의미에서 이승만은 하늘이 낸 지도자라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처칠보다 더 훌륭한 인물로 재인증하였고 반공활동으로 국사의 경제 안보 기반을 다지었고, 한미군사보호조약을 이끌어 낸 한반도 평화유지의 지혜자로 강조하였다.

세번째로 김희창 박사/목사는 트럼프필승한인팀,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대표로서 "이승만 국부의 미국문화 리더십"을 발표하였는데 그가 미국에 단순 5년짜리 유학생이 아닌 미국정치 경제 사회 교육 외교 문화 등을 리서치하며 체험할수 있었던 40여년의 세월이 응고되어 그의 하바드대학교에 이은 프린스턴대학교의 "미국의 영향하에 있는 중립주의론"을 뛰어넘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북한과 세계속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문화를 전체주의 지배체제권 상황에서 제헌헌법에 도입 정착시키었고, 주종관계 문화권에서 평등사상문화를 도입해 펼치었고, 전체주의 경제문화체제에서 경제개혁문화로 개인소유 개방문화를 도입 실시하였고, 불교 유교 문화 제도권에 기독교 채플린 제도를 군대 학교 병원 교도소 직장 등에 도입 물고를 틔므로 국민을 돌보는 지도력을 정착시켜 국가사역을 어머니의 돌봄을 현실화 시킨 대한민국의 문화를 세계적 수준으로 바꾼 세기적 지도자이었다고 강조하였다.

네번째로 발표한 주준희 박사/목사는 경기여고 수석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정외과, 뉴욕주립대학교 국제정치학 철학박사로서 에모리대와 서울대 강사를 하였는데 엘에이 동시통역대학원장을 하고있다. 그는 하나님이 어두운 동방 한국에 선교의 여명이 틀 때에 이승만 청년을 배재학당에 몸담게 하고 감옥생활에서 기독교 신앙하게하고 미국에 최고 학교에 유학함으로서 애국 독립운동을 하여 기독교 정신에 의거한 건국을 펼치었고 미소의 군사적 긴장감 속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였고 대한민국을 유엔의 인정 결의까지 이끌어낸 외교력의 위인으로 교육의무화와 미국지원의 보장

인 한미협약의 의사록도 체결하였고 쓰레기 같은 한국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같다는 상황에서 민주주의 꽃이 피게 한 기초를 놓은 이승만 건국 대통령으로 아직 그가 남겨놓은 자유통일의 꿈을 같이 꾸려가자고 강조하였다.

본 행사를 축하하는 축사에서 남가주원로목사회와 성공회 회장인 신원철 목사는 일본의 압박과 설움에서 생겨주신 감사를 드리면서 대한민국이 자리잡기도 전에 김일성의 6 25 남침으로 전쟁 고아로 자란 역경을 피력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한 자유 대한민국을 공산당으로부터 또한 그가 만들어낸 한미방위조약을 통하여 견고하게 지켜내자고 피맺친 절규로 축하하였다.

이어서 두번째 축사로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전 월드미션대학교 총장인 송정명 박사/목사는 대한민국의 이승만 박사를 통한 건국은 국가의 정체성이고 역사성임으로 본 대한민국 건국 73주년 기념행사를 의미깊다고 축하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승만대통령 취임사 발체를 권성주 국민의 힘당 엘에이회장이며 자유대한지킴이국민운동본부 수석부회장이 상황설명하며 전달하여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역사적 창의적 사건이 본 행사를 통하여 오늘날 동포들에게 심겨지었다. 마지막으로 원태어 예비역 해군제독이 만세삼창을 하였고 미주 CBS 대표 한기형목사가 축도하였다. 이어 준비된 도시락 점심으로 교체하며 조국 애국심을 다지었다. 본회는 매월 둘째 토요일 11시에 엘에이 한인타운 본 장소인 말씀새로운교회에서 모인다.

연락 회장 213 268 9367 KVMCF SC 회장 김희창



LA시청근무

대한민국건국 73주년 포럼 스케치

회사라 청년 아나운서가 2부 포럼 행사 사회를 보았다. 전 TBS앵카,



원태어 제독 장로가 만세삼창을 선도하였다



최학량 박사/목사 대한민국건국대통령기념
사업회 LA 회장이 포럼 발제1을 하였다.



그레이스 송 미주31여성동지회회장이
포럼 발제2를 하였다.



김희창 박사/목사 트럼프평생한인팀 총회장이
포럼 발제3을 하였다.



주준희박사/목사 국제정치학 전공
포럼발제 4를 이승만대통령의 꿈 발제에 주었다.



신원철목사 남가주원로목회 회장이 축사1을 해주었다.



송정명 박사/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축사2를 해주었다.



김인수 박사/목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전 총장
1부 예배 설교를 해주었다.
2부



권성주 자국본 수석부회장이 이승만박사취임사 요약 발췌하였다.

*김소연 울동찬양단 월드타운찬양단이 찬양으로 섬겼다

인천상륙작전 71주년 포럼 열린다

<http://www.koreatimes.com/article/1379465> 발행

9.8.2021 구자빈 기자



인천상륙작전 71주년 기념 LA 포럼 관계자들.
KVMCF SC 차기학·최청학 부회장, 김회창 회장, 권성주 자국본 수석부회장, 김영석 목사

인천상륙작전 71주년 기념 LA포럼이 오는 11일 오전 11시에 말씀새로운 교회(2975 Wilshire Blvd #415, LA)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KVMCF SC)에 따르면 이날 포럼에서는 원태어 해군 제독이 '맥아더 원수 상륙지휘력 분석'을 평생 해군

정보통 함장으로 근무한 실무 중심으로 발제한다. 이어 김회창 박사가 교차문화 의사소통 리더십 전략 전공자로서 그레이트 한반도 통일리더십 연구소장의 입장에서 '맥아더 원수와 손원일 제독의 문화소통 분석'을 발표하고, 마지막 순서에는 뉴욕주립대학교의 국제정치학을 전공한 주준희 박사가 '맥아더 장군의 국제 지도력 분석'을 맥아더 원수를 전공한 입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1부 정규 예배에서는 남상국 목사가 메시지를 전달한다. 당일 점심은 무료로 제공되며 참석을 원한다면 9일 오전까지 (213)268-9367로 전화해 RSVP하면 된다.

7일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의 김회창 회장은 본보를 방문해 "인천상륙작전 71주년을 기념해 이를 기록하기 위한 LA포럼을 준비했다"며 "조국의 역사를 2세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인 만큼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트럼프필승한인팀, 한미동맹협의회,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LA, 미주31여성동지회, 예비역성우회LA, 자유대한지킴이국민운동본부LA가 협력해 주최한다.

애국가

브람스 작곡 안익태 작곡

1. 동해 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2.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3.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없
 4. 이기 상과 이담으로 충성을 다 하

하느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만 세
 바람서리불편함은우리 기상일세
 밝은달은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후렴)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 3.6.25 로 맺어진 혈맹 미국과의 관계 증진에 실질적으로 앞장선다
- 4.한민족이 미국과 함께 세계를 리드하도록 인물을 양성해 세계적인 화해의 지도력을 심는다.
- 5.애국 군인을 위해주고, 애국 예비역 군인가족, 애국 시민으로 살아가 애국 동지의식을 함양한다.
- 6.디아스포라 예비역 장병들 가족 복음화를 통하여 세계 속에 영향력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추구한다
- 7.이곳 로스엔젤레스를 비롯한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상대를 귀히 여기는 인터컬처럴 국제적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살아간다.
- 8.우리 한반도의 자유 평화가 넘치는 통일을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며 힘쓴다.
- 9.우리 가족 후손들에게 한반도 자유주의 통일과 사랑을 심어준다.
- 10.미주한인교회와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부흥과 발전에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11.중국에 정의와 사랑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의 삶에서 성취될 것을 믿는다. 아멘

2021 년 8 월 14 일 회장 김회창

KVMCF SC 비전선포문

유구한 역사를 지닌 세계의 중심에서 태어나 고향 땅 한반도의 자유 평화를 지키고자 국방의무 이상 희생으로 몸바친 조국 대한민국 애국자들이 이곳 디아스포라의 센타 로스 엔젤레스에서 자유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발전하도록 선지자의 파숫군 심정으로 그 비전을 선포한다.

- 1.우리를 통하여 건국 73 주년된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으로 지켜나간다
- 2.조국 자유 대한민국의 갈등해소에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한반도의 자유 민주주의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

352 십자가 군병들아 (통일 390)

조금 빠르게

1.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 해인 어나
 2.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 해인 어나
 3.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 해인 어나
 4.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 해인 어나

기그네이 들나할날 고팔이에 서는의한 주수복승
 사리족전 나불하하 고에고은 영수늘영 광따기생 울라도를 언감하면 도때변으 북에서머
 담곤주글 대나권개 히가능가 싸싸민부 르 라라라라
 주수복승 제업음전 서는의한 승원갑군 전수주사 하앞입들 고에고은 영수늘영 광따기생 울라도를 언감하면 도때변으 북에서머

그주너영 군예발광 대수은의 거험자주 느을리와 리주에합 사사서께 이강승왕 기하성노 게하다하 시시하리 내네라라 아멘

(통일 248)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아침 550
 새해송구영신 T. Hastings(1784-1872) Hail to the brightness of Zion's glad morning WHEEL: 11.18.15.16 L. Mann(1792-1872)
 브람스풍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아침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아침
 3.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아침
 4.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아침

어때말찬 들었던양 이광시주 땅을넉넉 이물결 밤을들드 오오오오 내네네라
 슬음이사 플레산움 과전과과 애선저죄 불지산악 기꿈마가 뿌우추득 이면처한 되복음망 니을려에
 시만주찬 은미예송 의이수어 영다은하 이이을애 비누찬사 오겠하치 네네네네 아멘

쉬운 기악코드(chords): Ab - G D# - C Eb - D Bb7 - A7 Fm - Em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

Korean Veterans Military Christian Fellowship in Southern CA

2021년 9월 예배

"인천상륙작전 71주년 포럼 행사"

9월 11일 토요일 11:00AM

장소:말씀새로운교회

대표전화: (213) 268-9367

2975 Wilshire Bl #415. LA, CA 90010



알리는말씀

"인천상륙작전 71주년 기념 행사"

인도: Dr.최학량 목사
반주: 정 은순 장로
안내: 최청학 부회장

1.오늘 행사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모든 회원들을 환영합니다.

2.오늘 말씀으로 섬겨주신 전 남가주목사회장 남상국 목사님, 행사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본 회의 예배 모임은 매월 두번째 토요일 오전 11:00 말씀새로운교회(2975 Wilshire Blvd., #415 LA)에서 있습니다.

4.본회는 서로가 격려하고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백신도 맞은 예비역 군인가족들과 호국 기도자들의 선교 모임입니다.

5.오늘은 9월 11일 2부에는 **인천상륙작전 71주년 기념 포럼 행사**가 있습니다.

6. 2부 포럼 후에 점심식사를 드시며 교제하시고, 후원해 주신 권성주 자국본수석부회장께 감사드립니다.

• 행사주관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군인회(KVMCF SC)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국민의힘당 LA,

• 행사협력

트럼프필승한인팀(TVKT),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LA, 미주 3 1 여성동지회, 자유대한지킴이국민운동본부LA, 한미동맹협의회, 예.성우회LA, AKTV, 김소연찬양울동단, 월드타운찬양팀,

회장단 연락처

회 장: 김 회 창 목사 213-268-9367

부 회 장: 차 기 학 목사 213-453-4572

오전 11시 *표는 일어서서 (Please stand all)

1부 예배

경배찬양(Praise & Worship) ..10분전 월드타운찬양팀
*묵도(Silent prayer) 다 함 께
*KVMCF기도문다 함 께
*찬송 (Hymn)..352 십자가 군병들아(통390)..다 함 께
대표기도(Prayer)..... 김회창 회장
성경봉독(Scripture).....요한복음 17:3..... 인도자
특 송김소연찬양울동단
설 교(Message)... "알아야 면서기라도"남상국목사
헌금 (Offering)..찬송550시온의 영광이(통248).다함께
헌금기도(Prayer)..... 차기학부회장
광고 (Announcement).....환영 인사.....김회창회장

2부인천상륙작전 71주년 기념 포럼

사회:김영석 목사
(LA광명교회 담임)

*국민의례/애국가 제창: 다같이

축가: 임화자 전도사

발제 1:

원태어 제독(예. 준장)/장로 (KVMCF SC 개척단)

-“맥아더 원수 상륙 지휘력 분석”

축가: 월드타운찬양팀

발제 2:

Dr.김회창/목사(트럼프필승한인팀TVKT 총회장

예. 해군군목, 트리니티대학교 총장)

-“맥아더 원수와 손원일 제독 문화소통 분

석”

발제 3:

Dr.주준희/목사(국제정치학전공LA동시통역대학원장

전 에모리대학교 강사, 서울대학교 강사)

-경기여고 서울대 정외과 뉴욕주립대학교 Ph.D.
-“맥아더 장군의 국제 지도력 분석”

발제 1

축사: Dr.이충애 목사
(청운교회 선교목사)

맥아더 원수 상륙 지휘력 분석

축가: 김수경 교수
(석정희 작시 백경환 곡)

원태어 해군제독/장로
해군정보부대장 역임
대한민국성우회 LA멤버
KVMCF SC 개척멤버

*만세삼창: 자국본 수석부회장 권성주 정교

*축복기도(Benediction)

..... Dr.류당열 목사
(전 한기총 미주총회장)

식사감사기도: 최훈일 목사

KVMCF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은총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7:3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 인천상륙작전은 세기의 군사작전으로서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15일 UN군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의 주도로 진행된 상륙작전이다. 김일성군대의 6. 25 새벽에 급작스런 남침으로 인하여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린 상황에서 맥아더 원수의 UN군 75,000명의 병력과 261척의 해군함정(한국 15척)이 기습 상륙전을 하였다. 장소는 경기도 인천시 월미도 앞바다이었고 결과는 UN군의 승리로 북한국의 병참선을 일거에 차단되었다. 인천을 수복하고 UN 군의 반격은 계속되어 서울 수복도 하였고 평양 탈환도 하였었다. 낙동강 전선에서도 북진했으며 9월 28일 서울 탈환까지 이끌어졌다.

- 6.25전쟁의 물꼬를 일거에 틀어버린 전환점이다. 상륙전 9월 10일 부터 미해군과 공군을 동원하여 월미도를 비롯 인천지역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 월미도. 첩보부대원 침투 . 9월14일 발각 포위됨. 작전 전투-자결
임병래 중위-을지 무공훈장 1954년 수여. 9월 호국 인물 . 리더 장학수 대위
홍시욱 하사(이등병조)-2013년 유도탄 고속함 임병래 명칭 하였다.
- 9.1. 해군 첩보부대는 그동안 수집한 정보. 맥아더 사령부 정보대에 인천의 적병력. 보급관계 기획부설현황. 상륙지점의 지형. 암벽의 높이 등 상륙 성공에 결정적 정보를 전달함
- 계획 단계에서의 반대 의견.
3개 결정(인천. 군산. 주문진)
서해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극심한 것과 밀물시간에만 상륙해야 하는 점

참모들은 여러 이유를 들어 작전을 반대했다. 그러나 맥아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결정시켰다.

성공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평가(미 해군사령관) 양동작전

8월23일 미국 육군 해군 참모총장이 도쿄 극동군사령부까지 와서 맥아더와 회의를 하고 인천상륙작전 결정

남한지역: 삼척시 영덕군 장사리 병참선 차단

북한지역: 함경남도 신포시 . 마량도 남포시.

(참고: 위키백과 검색 참조: 인천상륙작전)

발제 2

"맥아더 원수와 손원일 제독의 문화소통분석"

김회창 박사

(GTS 교차문화 리더십 전략 전공,

그레이트 한반도 통일리더십 연구소장,

트리니티대학교 총장,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전 겸임교수,

트럼프필승한인팀TVKT 총회장, AKTV 이사장,

남가주 한국예비역기독교인회장)

• 상륙작전 9월 15일
17:31 미 해병 5연대 2개 대대. 병력 7만 5000명. 적색 해안 상륙

17:32 미해병 1연대 3개대대 청색 해안

18:00 한국 해병 3대대.적색 해안

06:33 미 해병 5연대 3대대 상륙

- 기뢰 부설: 소련 해군의 도움 받아서 시작은 했지만 인천에서는 발견되어서 조기에 철거됨
- 팔미도 등대 점령. 수리- 5시 5분 미 해군대위 클라스. 한국 육군. 해군 장교 등 연합작전팀이 수리함
- 월미도 그린 비치 상륙-9월 15일 5시 상륙 준비 사격 시작

제1파는 상륙정 7척으로 차량 및 병력으로 미 해병 1사단 5연대 대원-6시33분에 상륙

제2파는 6시35분 2개중대

래드 비치. 블루 비치 상륙

인천항 공격시 높은 방파제를 넘기위해 일본에서 나무사다리 수천개를 긴급히 제작해서 공급함

• 북한군 인천상륙 예고 보고

9월 15일 북한군 평양으로 전보발 적합정 인천에 접근중. 다수의 항공기 월미도 폭격중 UN군 상륙기도가 극히 농후함.

맥아더 원수의 군사 상륙 지휘력은 전략적이고

국제적 안목에서 자유 수호적이고

도덕적인 군대를 목표하오렸고

주둔 지역의 자유 평화를 복귀시키는

하나님이 한반도 회복에

예비한 군사지도자이다.

그는 군사전략가로서 그동안에 참전하였던 상륙작전들이 한국 인천상륙작전을 위함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간의 문화소통은 메라비언보고서에 의하면, 93%가 비언어적(무의식적, 잠재의식 반영, 그 문화적 해석)으로 전달된다. 세분하면 목소리로 38%, 얼굴표정으로 55% 전달된다.

여기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언어적 메시지를 보완, 다른 메시지와 대조될 수 있고, 언어적 메시지를 반복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규제한다. 이것은 대화의 흐름을 통제하는 주요수단이라고 칼리 도드가 역동적 커뮤니케이션(p.222)에서 언급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두 군사 지도자는 서양의 지도력과 동양의 지도력과의 만남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수행하였는데, 다음의 다섯가지 면에서 통하였다.

첫째는 기독교 가정 문화적 배경, 둘째는 서양문화적 경험, 셋째는 군사 전쟁문화적 배경, 넷째는 애국자 가문 문화적 배경, 다섯째는 전제군주적인 반공산당 문화 차원에서 눈짓만 보아도 두 지휘관 사이에서는 지도력 문화소통이 잘 되어 일사분란하게 문화장벽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었다.

인천상륙작전하면 누구나 먼저 유엔군사령과 맥아더(Douglas Mac Arther) 원수와 국군지휘관 손원일 제독을 떠오르게 된다. 금번 그 71주년 기념 포럼은 남가주 한국 예비역기독교인회 그레이트한반도통일리더십연구소, 협력으로 트럼프필승한인팀, 한미동맹협의회,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LA,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LA, 미주31여성동지회, 예비역성우회LA, 김소연찬양울동단, 월드타운찬양단 등이 참여함으로 의미가 더해진다.

본 포럼의 상황은 미국과 한국의 한미동맹 형성과 강화에 현 집권당의 반미친중 종북으로 위협이 실감되는 시점이다. 우리의 조국 한국 내에서 현 집권세력이 남침 지휘관들을 영웅화시켜가고 있고, 중공군의 남침 합세를 보편화시키려 하는 때에 이곳 삶의 터전인 미국에서조차도 한미동맹의 반세력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미 의회에까지 친입된 일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 미군철수 후 긴장되는 상황을 맞았다.

이것은 월남철수 후 공산화 상황과 같은, 마치 한미동맹 강화 파트너십이 낙동강 벨트에 까지 밀린 위협과 같은 큰 위기를 애국인들은 절감하게 되었다.

한국을 지키어낸 두 인물을 전투 작전을 문화 소통적으로 살피면서 그들이 어떠한 행동문화로 오늘이 있게 한 군사 전략적 문화 리더십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필자는 "맥아더 원수와 손원일 제독의 문화소통 분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첫째로, 그들의 국가적 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이다.

두 장군의 문화적 배경은 차이가 많았다. 맥아더 원수와 손원일 제독은 국가적으로만 보면 다음과 같이 달랐다. 1.그들은 저맥락(low context)과 고맥락(high context)으로서 전혀 눈치 못채는 문화와 단번에 눈치 채는 문화코드로 달랐다.

2.또 직접적(direct)인 해결을 시도하는 국민문화와 간접적(indirect)으로 일을 해결하는 문화코드로 달랐다.

3.나아가 체면이 덜 중요한 문화(less important)와 체면이 중요한 문화(more important)로 달랐다.

이와같이 문화가 다른 것은 맥아더 원수(1880. 1. 26-1964. 4. 5)의 경우는 유럽계의 스코틀랜드계 미국 군인 가문 출신으로 뉴욕커로서 장군의 아들이고,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 출생이었다. 그에게는 웨스턴 스타일이 몸에 배어 있었고 거기에 군사적인 아버지 문화가 어릴 때부터 배어 있었는데, 거기에 군사문화의 센터인 미국 육사 웨스트포인트를 다니고 장군이 됨으로 애국적 미국인 문화적 군사 리더로 볼 수 있다.

손원일 제독(1909. 6.22.-1980. 2.15)의 경우에는 일제군사문화시대에 자랐고 아버지가 독립운동하는 중국 길림성 지역으로 가서 함께 독립운동하며 살게 됨으로 늘 나라를 위하는 애국 문화가 깃들게 되었다. 그도 중국해군의 국비 유학생으로 독일에 3년(1927-30) 유학함으로 웨스턴 타입에 개한 외국 서양문화를 접하게 되어 20년 후의 미국군사들과 함께하는 문화적 리더십 소양을 쌓은 것은 하나님의 자유 대한민국 수호를 위한 준비시켜 준 섭리로 볼 수 있다.

손원일 제독은 한국 초대 해군참모총장을 한 해군과 해병대의 설립자이었다. 그는 2등 항해사 자격증을 지닌 지휘관으로서 미국의 백두산함을 구입하여 인도하는 중에 6.25 전쟁을 만났고 이 함정으로 대한해협을 지켜냄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구국의 보루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는 해방 전에는 독립하는 한국의 부활을 꿈꾸었고, 해방 후에는 해군 내에서 정신적으로 기독교적 정신의 병영문화와 국가문화를 심고 가꾸는데 앞장선 리더십의 소유자이었다. 그의 정신을 기리는 진해의 원일다락방이 초급 장교들의 기독교적 문화를 함정에서 셋팅하는 훈련 장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와같이 맥아더 원수와 손원일 제독은 하나님께서 보내고 세운 나라 자유대한을 지킨다는 애국적 소명으로 각자의 문화벽을 넘어서 군사 리더들로서의 소임을 다한 지도자들이었다.

둘째로, 그들의 가정적 문화이해이다.

맥아더의 아버지인 아서 맥아더 Jr(1845-1912)는 미 육군 중장이었고 형이 2명(아서 맥아더 3세, 맬컴 맥아더 2세)이 있었다. 아버지 장군은 남북전쟁, 스페인전쟁, 필리핀전쟁 참전지휘관이었고 예편후 법률공부 후 재입대하였고, 규칙을 강조하는 지휘관으로 기독교 신앙심이 깊었다. 그의 어머니(메리 P. H. 맥아더)는 전쟁에 참전한 남편하고는 멀리하게 되었던 때에 아들 맥아더가 있는 육사 웨스트포인트 근처에서 뒷바라지를 해준 교육과 섬김으로 아들을 돌보아 준 신앙적인 어머니였다.

맥아더는 신앙의 기본인 원칙을 지키었으나 이혼 후 재혼하는 쓰린 삶도 있었고 어려움 중에 있는 아들에게 주는 명 기도문이 남겨져 있다.

손원일 제독은 가정적으로 목사인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였고 본인도 중국 길림성에서 아버지가 섬기는 이민 감리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성장하였다. 아버지 손정도 목사는 애국운동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상해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장 곧 국회의장격의 지도력을 지니었다. 손원일 제독은 어머니 박신일 밑에서 2남3녀중 장남으로 육문중학교를 동생과 같이 나왔는데, 그는 상해독립운동단체 비밀연락원으로 활동하였고, 식료품 수입상을 하였었는데 나중에 해군을 조직하는데 보탬이 되었다.

여기서 아버지 교회에 송실학교 2년선배 김형직의 아들인 김일성이 5년을 같은 교회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아버지 손정도 목사가 일찍 51세에 죽자 교회를 떠나서 김일성은 레닌 군대에 빠져들어 공산당으로 전향해 민족적 원수의 길을 가게 되었다. 손원일 제독의 동생 손원태 박사는 김

일성과 고교 동기로 시카고에서 살며 가깝게 지내다가 죽어 평양애국열사능에 묻히는 알레고리도 있었다.

그러나 손원일 제독은 애국과 구국과 호국의 심볼로서 아버지의 구국 영성을 지니어 6 25 전에 1945년 11월 11일 해방병단(해군모체)을 창설하였고, 1948년 9월5일에 해군을 공식 창설하였고, 또한 1949년 4월15일에 해병대를 신현준 소령에게 창설하게 함으로서 대한민국의 애국자로서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

여기서 보듯이 맥아더와 손원일 제독은 가정적으로 성경적 정신이 신앙으로 베이스로 되어 있었고, 모세의 구국일념과 예수의 악을 척결, 하나님의 나라 구현 문화가 그들을 국가에 헌신할 수 있게 하였다.

셋째로, 그들이 공유한 군사 공통점 문화 이해이다.

맥아더는 미 육사 웨스트 포인트에서 수석으로 공부하고 육군참모대학, 육군지휘참모대학교를 나온 정통 군 장교이었다. 그는 1차 세계대전에 미 육군 42사단 참모장하다가 준장 진급하고 임시 사단장도 최연소로 시무하였다. 또한 그는 멕시코 혁명전쟁, 1차,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4회의 베테랑으로서 최상급의 전쟁문화를 경험한 자이었다. 그는 최연소 소장으로 진급하였고, 미육사 웨스트 포인트 교장을 하였다. 그는 필리핀에서 명예 육군대장이 되었고, 1937년 필리핀 육군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미육군에서는 1941년 대장으로 복귀하였고, 1944년에 미 육군 원수로 진급되었다.

그는 도덕적 신앙문화가 몸에 배어서 웨스트포인트 재학시에 학교폭력을 경험할 때에 양심대로 가해자를 고발한 정의감도 있었다. 이런 그가 이중적이거나 가식적이거나 한 것에는 저항하였고, 정직한 교육문화권을 지니게 되었고, 그래서 동료들에게는 때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맥아더는 "마음을 터 놓은 소수의 친구"를 귀중하게 생각하였다.(위키백과). 이것이 그의 지휘통솔 지침의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그에게는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이 당연시되었고, 그것이 미국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일본에 원자탄 투하하는데 반대하지 않고 그 장소만 조정하여 정신적 유산의 도시 오사카를 피하고, 1945년 8월6일에 히로시마와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투하하는데 함께 하기도 하여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게 하였다.

손원일 제독은 아버지를 따라 일제군사지배체제의 핍박을 피하여 중국 길림성 연변지역 등에 머물면서 외국인들을 보면서 바다의 항해사가 되고자 하였다.

나중에는 그가 해군을 창설하여 나라를 지키는 해군의 수장이 되었고, 국방부장관(1953.6.30-1956.5.26)도 하였다.

그는 인천상륙작전시에 국군최고사령관으로서 인천상륙작전 전에 덕적도 등의 사전의 정지 작전에 성공하여 인천상륙작전의 길을 텠고, 인천상륙작전시에 해병대를 창설케 한 군리더로서의 소총을 들고 한국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장군이 지휘도 했다는 기록은 백선엽 장군과 같은 6 25 정신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손원일 제독도 인천상륙전에 주요 지휘관으로 참전하여서 "국군과 유엔군은 수도 서울을 탈환했다"고 포고문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군사전략적인 행동들에서 맥아더 원수와 손원일 제독은 나라를 빼앗아오는 정신에서 구국정신 호국정신의 문화 코드가 소통될 수 있었다.

넷째로, 그들의 전쟁 문화에 대한 전략적 소통이해와 분석이다.

맥아더 원수는 제 1, 2차, 한국전쟁 이라는 크고 긴 전쟁에 참전하면서 전쟁터의 국가에 어떤 영향성을 주려고 하였다. 일본 집정 직무사령관 권한대행 서리 1년(1945. 8.15-1946. 8.18) 동안에 일본 천황문화를 개화하려고 하였다.

그는 "천황은 인간이다"라는 발언을 이끌어냈고 같은 피조물임을 인지시키었었다. 그 구체적인 역사적 사진을 남기었다. 그것은 바로 183cm의 맥아더와 165cm의 쇼와 천황이 함께 사진을 찍었고, 더구나 천황은 차렷자세였고 맥아더는 "짹다리 짚고 두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어" 인간은 신이 아니고 신 행세를 한 천황을 일본인 앞에 드러낸 것이었다. 이 이후 일본 내에 천황의 권위가 실추되었고, 오히려 천황보다 더 높은 새로운 신이 등장하였는데 당시 팬레터가 44만건이 넘는 바로 "맥아더 원수신"이었다. 여기서 맥아더는 일본을 바꾸기 위하여 "탈군국주의화 4대 정책"을 시도하였다.

- 1.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을 묵인하였다.
 - 2.교과서 내 천황 신격화 금지 조치하였다.
 - 3.군 지원한 재벌해체하였다.
 - 4.전쟁 책임자 공작자 2만명을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 여기서 보듯이 맥아더는 인간의 평등화 민주주의화를 시도하였으나, 일본 군정이 종식된 후에는 다시 반복되는 일들이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경우, 맥아더는 태평양사령부를 일본에서 지휘하면서 예하에 한국에는 미 제28군단에 존 리드 하지 중장을 대리인으로 미 군정청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맥아더는 이승만박사가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에 초가을에 이승만 대통령을 일본에 초청하여 그 권위를 일본 천황에게 인지시키었고, 한국방위 지원받았고, 귀국시에는 자신의 전용기 바탄호를 내어 주기도 하였다. 1950년 1월 21일에 다시 초청하여 한미관

계에 대한 확인으로 격려는 일본 앞에 해주었으나 무기지원은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에게는 한국전쟁 중에 한미군사협정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절감케 한 것이 되었다.

나아가 한국전쟁시 인천상륙작전에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은 전략적으로 접근하였다. 제1단계 월미도 점령, 제2단계 한미인천반도 공격으로 워싱턴정가의 반대에도 이승만 대통령의 전화 요청을 1950년 6월 26일 밤10시 30분경에 받고 트루먼 대통령이 결심해 결국 명령을 하달함으로 맥아더는 하네다 공항에서 수원으로 갔고 그 30일 워커중장의 24사단을 한국으로 가게 하였다. 그는 인천상륙작전을 한미합동으로 하였고 미7사단, 미해병1사단, 국군해병1연대 국군 17연대 해군이 참전하게 하였다.

여기서 그는 함정 206척과 7만여 장병을 지휘통솔하여 한국측에서는 손원일 제독과 함께 영종도 인근에서 상륙전을 실시하여 5000분의 1의 확율을 성공시켰었다. 그의 성공 지침에는 "군대에 민주주의는 없다"고 유엔군총사령관 취임에서 밝혔었다. 또한 지휘관은 옳고 실속있어야 함을 주지하였다. 깍차지 않은 지휘관은 외면하였다. 한국의 채병덕 육군참모총장을 허세높고 실속없음을 간파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진언하여 정일권장군이 육군참모총장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을 조속히 종결하기를 바랐던 그는 5대 전략이 있었다.

1. 압록강 피안의 적 보급기지 폭격,
2. 중공 경제 봉쇄 실시
3. 미 해군으로 중국 본토의 연안 봉쇄,
4. 공군이 중공 본토 공격
5. 타이완에 있는 국부군에 가해진 제한을 없애야 한다.

이러한 전략적 사고를 유지하며 한국 전쟁을 감당하였다.

손원일 제독은 6 25 전쟁을 참전하면서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장군, 공군참모총장 김정열 장군과 의형제로 지낼 정도로 전우애가 있었다. 미군과의 깊은 연대 강화로 미국은성무공훈장을 받았다. 특히 그가 지휘한 해군에는 일본의 해군에서 한국출신을 수용할 영역이 별로 없어서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 없었다. 해병대에는 1, 2, 3대 사령관이 만주군 출신자들이었다. 그는 인천상륙작전에 해군과 해병대도 꼭 참전시켜야한다고 주장하여 참전케 되었다.(위키백과).

이와 같이 맥아더 원수와 손원일 제독은 전쟁문화코드, 기독교적 가정의 선악관 코드, 나라에 대한 애국관 문화코드가 서로 소통되어 인천상륙작전을 필사적으로 성공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

다섯째로, 결론으로 이 둘 지도자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

시키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 받은 자기문화권의 영역을 넘어 인류의 자유라는 공동 목표를 이루어 간 세계에 자유의 세계를 지킨 국제적인 군사전략가들이었다.

맥아더 원수는 반공산주의 전략적 군지도자, 자유 사수하는 애국인 사회운동가, 전략적 정치가로 평가되는 지도자이었다. 손원일 제독은 반공산주의자로서 군사전략가이고 국방장관으로서 사회를 안정시킨 자이고 애국적 결기가 있었다.

맥아더 원수는 미육사 웨스트포인트에서 은퇴하면서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고 명연설을 하였다. 그는 웨스트포인트의 야구선수출신이었는데 인류의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순간적 작전의 진수를 전쟁터들마다 보여주었다.

그렇게 많은 세계적 전쟁에 참전한 맥아더에게도 틈새가 있었다. 그것은 그가 중공군이 참전한다는 백선엽 장군의 보고 은폐와 한국전쟁이 곧 끝난다고 속단하여 미군의 보급품을 하와이로 돌려보내게 함으로 전쟁이 길어지자 그 책임을 지게 되었다는 기록은 믿어지기 어려운 사실들로서 군사문화에서는 정보문화가 분명해야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음을 맥아더 원수 사령관이 후배들에게 지금도 말해주고 있다.

손원일 제독은 그 애국적 결기가 컸다. 북한군을 불법 남침한 군대로 언급하며 북한군을 분쇄하고, 위기에 처한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정의와 자유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인천상륙작전을 참전하는 해병대 장병들에게 훈화하였다.

유엔군사령관 맥아더와 국군사령관 손원일 제독은 기독교 가정문화적 배경 서양문화덕 경험, 군사교육과 전쟁문화적 배경, 애국자 가문의 문화적 배경, 반공산주의적 사고 철학으로 연합되어 손원일 제독은 동양문화권의 눈치문화를 전쟁전략에 맥아더 원수의 전략적 메시지를 읽게 되었다.

맥아더 원수도 일찌기 필리핀 미군 지휘관으로 근무하였던 문화적 경험으로 손원일 제독과 함께 하는 연합작전에 대성공을 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다. 미군이 주축이 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은 몇년 지난 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을 이끌어내는데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문화 소통적인 인천상륙작전에서 현대의 한반도에 국가적 정체성을 지켜내었고, 외교 안보적 경제적 탁월한 결과들을 창출함으로써 전쟁의 상황에서도 군사 전략적 소통의 발전적인 결과를 유산으로 남겨놓은 역사적 창의적인 세기의 지휘관이었다.

발제3

맥아더 장군의 국제지도력 분석

.주준희 박사(국제정치학전공LA동시통역대학원장
전 에모리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교수
-경기여고 서울대 정외과 뉴욕주립대학교 Ph.D)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대한 꿈이 있으셔서, 식민지가 될 위기에 처한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셨고, 미국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배재학당에 들어간 양녕대군의 18대손 이승만을 이끄셔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 선교사가 전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식민지 기간 미국의 하바드와 프린스턴 등 최고 교육기관에서 교육시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그가 대통령이 되도록 인도하셨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탄생과 생존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보내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꾼은 맥아더 장군이었다. 하나님의 신실한 군인이었던 그는 일본을 패배시켜 한국을 독립시켰고,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고 미국의 필하버를 공격해서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이고, 인류 최초로 핵폭탄을 맞고 항복한 후 7년간 미국에 점령당해 군정을 겪은 일본이 지금까지도 미국의 충성스러운 동맹으로 남아 있는 것은, 바로 맥아더 장군의 대일 정책이 그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옵소서>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남을 정복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자녀를...

많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애송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는 맥아더 장군이 쓴 것이다.
맥아더 장군 스스로가 폭풍우 속에서 용감히 싸울 줄 알고 패자에게 관용할 수 있는 군인 중의 군인이었다.

원자탄을 투하받고 미주리선상에서 천황이 맥아더 장군에게 항복각서를 쓴 후, 1945.9.2-1952.4.28 기간의 맥아더 장군이 이끈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군정기간은 두 기간으로 나눌 수 있다. 1945년에서 1947년은 광범위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개혁이 있던 시기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정신적 지주였던 신도는 천황을 신격시 하였으나, 일본점령군 최고사령관이자 일본 군정사령관이던 맥아더 장군이 제시한 헌법은 천황이 인간 선언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반발한 사무라이들의 할복자살 소동도 있었으나 맥아더 장군이 헌법을 받아들여 지 않으면 천황을 전범으로 재판하겠다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헌법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이었으며 여성에게 투표권을 명시하기도 했다.

또한 뿌리 깊은 재벌을 해체하고 농지개혁을 실시하여 민주주의의 토대를 놓았다. 천황의 전체주의적 국가였던 일본에 현대적인 대의민주주의가 사실상 최초로 정착되고, 일본이 패전을 딛고 경제대국으로 비상한 것 또한 연합군 최고 사령부의 각종 개혁이 큰 효과를 발휘했다. 맥아더 장군이 도입한 큰 틀은 현재도 별로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 전체에서 소련의 남하정책이 나타나고 처칠이 "철의 장막이 내려졌다"고 한탄한 1947년경부터 트루만 대통령의 봉쇄정책과 함께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으려는 정책이 실시된다. 트루만 독트린을 통해 1.3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돈이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의 재건에 투입되었다. 일본의 경제는 급성장하게 된다.

한편 알타와 포츠담 협약에 의해 일본의 패전시 38선 이북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무장해제를 시키기로 되어 있었고, 1945년 천황이 항복한 후 소련군이 몰밀듯이 남하하고 있다는 소식을 일본 주둔 중 전해들은 맥아더 장군은 급히 9월 6일 패전 일본의 식민지였던 남한에 들어가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재조선미육군사령부 군정청을 설치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게 된 배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형제 된 맥아더 장군과 이승만 대통령의 교감이 큰 역할을 했다.

1950년 6월 26일 새벽 3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 있던 일본 군정 사령관 맥아더에게 전화를 걸어 "어서 한국을 구하십시오."라고 호통을 쳤다. 국제연합에서 소련이 중국의 안보리 대표문제로 비토를 하고 있는 사이, "집단

안보" 조항의 적용이 통과되어 극적으로 유엔군이 7월 3일 한국에 투입되고 맥아더 장군이 국제연합군 최고사령관이 된다.

맥아더 유엔군 최고 사령관은 본국 정부를 설득하여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전세를 역전시켰고 인민국을 압록강 국경까지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만주폭격, 중국연안봉쇄, 국부군의 사용을 주장하였고, 제3차 대전을 우려한 트루만 대통령과의 대립으로 1951년 4월 사령관의 지위에서 해임된 것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서울의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 입구에는 6.25전쟁에서 전사한 33,642명의 이름과 나이, 출신주가 벽 가득히 새겨져 있다. 캘리포니아의 제이슨, 19세, 플로리다의 토마스, 20세...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에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 꽃다운 젊은 이들이 낯선 외국땅에서 피를 흘리고 죽어간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에 1995년에 건립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는 사망자가 54,246명이라고 쓰여 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 맥아더 장군을 사용하셔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셨고 이승만의 꿈이었던 자유통일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 대한민국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아시아의 모든 민족에 예수가 전해지기를 꿈꾸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조만간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다음달에

전쟁과 평화 지도력으로 만납시다.